

《丹青寶筏：董其昌書畫藝術大展》

2018年 12月 7日 - 2019年 3月 10日

上海博物館

上海市黃浦區人民大道201號

박청아*

겨울 내내 내리는 비와 굶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상해박물관은 서화계의 거장 董其昌(1555~1636)의 작품을 감상하려는 관람객들로 연일 붐볐다. 2018년 12월 7일부터 2019년 3월 10일까지 열린 〈丹青寶筏-董其昌書畫藝術大展〉에는 明代 화가 동기창을 비롯한 동시대 서화가들의 주요 작품들, 이들 서화이론에 영향을 미친 역대 서화들이 포함된 154여점의 작품들이 전시되었다. '丹青寶筏'은 吳僞業의 〈丹青寶筏圖〉에 있는 清代 정통파 화가 王鑑의 제말에서 인용된 문구이다. 동기창은 南北宗論으로 중국 회화 계보를 정리하며 문인화의 우월함을 논하였고, 古法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조형세계를 이룩하였는데, 송강부 상해현 출신인 동기창의 작품을 상해박물관에서 전시하는 것은 나름의 의의를 지닌다 하겠다.

전시는 〈以古爲師-董其昌和他的時代〉·〈宇宙在手-董其昌的藝術成就與超越〉·〈一代宗師-董其昌的藝術影響和作品辨僞〉 세 주제로 구획되었다.

제 1섹션에는 동기창과 전통주의 서화가들에게 영향을 준 東晉·唐·宋·元·明에 이르는

역대 명작들이 전시되었다. 전시장 초입부터 王羲之, 王獻之, 顏真卿 등 동기창이 추송했던 역대 서예가들의 작품이 전시장을 묵직하게 채웠다. 또한 남종화가로 분류된 董源的 〈夏景山口待渡圖〉, 맞은편에는 북종화가로 분류된 郭熙의 〈樹色平遠圖〉가 펼쳐져 시선을 끈다. 특히 王蒙의 〈青卞隱居圖〉나 倪瓚의 〈六君子圖〉와 같이 이번에 전시된 董원, 왕몽, 예찬, 黃公望, 米友仁의



* 홍익대학교 박사

그림들은 대부분 동기창의 상찬문이 있거나 그가 소장했던 작품들이다. 명대 서화가로는 陳繼儒, 項元汴, 顧正誼, 莫是龍, 詹景鳳 등 동기창과 같은 송강출신이거나 그와 화맥을 함께 한 문사들의 작품들이 전시되었다.

제 2섹션은 동기창의 예술세계를 상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 핵심 구간으로, 동기창의 작품을 전통학습기(50세 이전), 서화창작 형성기(51세~62세), 성숙기(63세~72세), 노년기(73세~82세) 등의 4부분으로 나누어 전시하였다. 그 중 초기 대표작으로 꼽히는 <燕吳八景圖>는 강남 산수에서 고식의 청록산수까지 고법을 바탕으로 그만의 화격을 이루어 낸 시도가 돋보인다. <烟江疊嶂圖>는 중기의 대표작 중 하나로, 대담한 산수 묘사가 파격적이다. 장대한 경관은 고법을 실험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되었고, 그는 여기에 變을 가하여 자신만의 독특한 회화세계를 완성했다. 70대 초반에 그려진 넬슨-앳킨스 미술관(The Nelson-Atkins Museum of Art) 소장의 <仿古山水圖冊>과 연이어 전시된 <秋興八景圖冊>은 성숙기 시대의 대표작들이다. 산의 준봉은 채색의 점들로 가득하고 구멍이 뚫린 듯 흰 공간들은 더 이상 구름 형상과는 거리가 멀다. 원근이 의도적으로 무시된 산의 무게감과 뒤틀린 나무들, 채색된 암산들을 띠처럼 쪼개어 무르익은 준법으로 화면을 짙게 채운 그의 산수화는 '仿古'라기보다 순수한 창작물에 가깝다. 전시하는 2미터 가량의 큰 축에 그려진 <靑卞圖>에서 정점을 찍는다. 구름 형태의 흰 공간이 원산의 산허리를 감싸고 구불구불한 흰 띠들로 둘러진 암산의 형태와 그 사이를 리드미컬하게 채운 묵색 짙은 나무숲은 화면에 숨막힐듯한 기세감을 불러일으키며 왕몽의 <청변은거도>와는 다른 자신만의 청변산을 만들어 낸다.

제 3섹션은 별도의 전시장이 마련되어 그의 전칭작들을 비롯, 송강파와 청대 정통파 화가들의 작품들이 전시되었다. 그의 위조작 및 전칭작들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작품의 진위를 감별할 수 있도록 곳곳에 패널을 설치하여 작품 감별에 대한 이해를 도운 점은 인상적이었다. <余山游境圖>의 경우 상해박물관본과 북경 고궁박물관본을 나란히 배치하여 전칭작과 진본의 필치를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한 것도 그러한 예이다. 전시는 동기창의 영향력을 가늠할 수 있는 송강파 및 정통파 화가들의 작품을 끝으로 마무리 지어졌다.

동기창은 높은 지위와 명성, 부와 장수를 누렸고 학문적으로도 최고의 경지에 오른 인물로, 후대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외견상 모든 것을 가졌던 그는 서화창작에서도 그의 모든 지식을 욕심껏 드러냈다. 괴이하고 추상적으로 보여지는 그의 서화세계는 총체적인 지식의 집약체이다. 연일 전시장을 빼곡히 채우며 그의 작품 앞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는 수많은 중국 관람객들의 모습에서 명말 서화계의 획을 그은 동기창에 대한 중국인들의 자긍심을 느낄 수 있었다.